

제583주기 현덕왕후 기신제 봉행



제583주기 현덕왕후(顯德王后)와 문종 대왕의 제572주기 현릉(顯陵) 기신제향제(忌辰祭享祭)가 6월 10일(월) 11시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 현릉(顯陵)에서 잠제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권오춘 부정공파 회장을 비롯하여 권용주 고문, 권오의 사무국장, 권기탁 전 능곡회장, 권오철 홍보 기자 등 50여 명의 현덕왕후 후손들은 새벽부터 안동과 대구 등지에서 대형버스와 승용차로 기신제에 참석했다.

이법수 현릉 봉향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화산부원군 후손들은 새벽부터 안동에서 대형버스로 올라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향사에는 조현관 이해연, 아헌관 권상규, 종헌관 이민순, 찬자 이종국, 대축 이진의 등도 분방하였다.

현릉(문종과 현덕왕후)은 조선 제5대 문종(文宗, 1414~1452, 재위 1450~1452)과 현덕왕후(1418~1441)의 능이다. 정자 각에서 볼 때 왼쪽 언덕에 문종의 능이 자리하고, 오른쪽 언덕에 현덕왕후 능이 위치한다. 현덕왕후는 아버지 화산부원군 권전(權專, 부정공파 16世)과 어머니 해주씨 최아지(崔阿只, 고려 해동공자 문헌공 최충의 12대손) 사이에 충정도 홍주 함덕현에서 태어났다. 14세에 세자빈 후보로 간택되어 궁중에 들어가 종5품 소훈(昭訓), 종4품 승휘(承徽)를 거쳐 세자빈이 되어 1441년 7월 23일 원순 단종을 출

산한다.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은 지 3일 만에 세상을 등지자 경기도 안산에 예장되었다가 문종이 왕위에 오른 후 왕후로 추송되고 능의 이름을 소릉(昭陵)이라 하였다.

그러나 세조 대에 단종복위운동의 실패로 노산군으로 강등되자 현덕왕후도 같이 폐위되어 능이 파헤쳐지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1513년(중종 8년) 복위되어 지금의 현릉 오른쪽 언덕으로 천장하였다.

화산부원군 권전은 부인이 돌 있었는데 현덕왕후의 어머니 해주씨와 말고 또 다른 부인으로 안동권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족보에는 호장 권효륜(權孝倫)의 딸이라고 등록되어 있다. 족보상으로 권효륜이 어느 파 누구의 후손인지 아직 명확하게 찾을 수 없으나, 권효륜은 정조공파 권추(權樞, 14世)의 사위이고, 권효륜의 사위는 현덕왕후의 아버지 화산부원군 권전이며, 권전의 사위는 좌윤공파 죽림공(竹林公) 권산해(權山海, 19世)이다. 그리고 문종의 장인이 화산부원군이다 단종의 외가집은 화산부원군 집안이며, 죽림공은 단종의 이모부가 된다.

신라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에도 왕족들은 왕족들끼리 혼맥관계를 유지하며 신분을 유지했는데, 안동권씨 족보를 보면 조선초기에도 안동권씨끼리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양촌 권근 선생 학덕 시제(詩題) 전국 한시(漢詩) 백일장 개최

문종공 양촌 권근은 조선 왕조의 수성(守成)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조선 개국 초 명나라와 조선 간에 표전문(表箋文) 사건이 발생한다. 표전이란 명나라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제후나 신하가 축하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명 태조 주원장은 조선에서 올린 표전에 희롱하는 문구가 있다고 트집 잡아 그 책임자로 삼봉 정도전을 지목하여 그를 명나라로 데려오라고 명한다. 이에 정도전은 명나라에 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 뻔하므로 병을 핑계 삼아 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두 나라 간의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어 최악의 국면으로 빠질 위중한 상황에 처했다. 이때 양촌 권근은 스스로 자원하여 정도전을 대신하여 직접 명나라에 가서 명 태조 주원장을 만나 '시'로써 조선의 위기상황을 구했던 당대의 문형(文衡)이자 문장가였다. 명 태조 주원장은 자신이 내려준 시제(詩題)에 맞춰 지은 양촌의 시를 보고 노성하고 진실한 수재(老實秀才)라고 칭찬하며 여제시(御製詩) 3수를 지어주었다.(태조실록 태조 6년 3월 8일, 1397년) 이는 명나라 황제인 주원장과 제후국 신하가 만나 시를 주고 받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기드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명 황제가 여제시 3수를 지어주고 조선의 신하 양촌이 명 황제의 시제에 맞춰 응제시(應製詩) 24수를 지었다는 의미를 넘어 1392년에 건국한 조선과 명나라 간에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외교관계를 풀고 신생국가 조선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단군이 국조임을 명 태조 주원장에게 직접 당당히 밝혔는데 더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하겠다. 양촌 선생의 "시고개벽동이주(始古開闢東夷主)라는 제목에 대하여"라는 시가 바로 그것이다.

동쪽 나라 왕위에 오르시니 位臨東國土

그때가 제오(帝堯)의 시절 時在帝堯天

대를 전해온 것 몇인지 傳世不知幾

햇수는 천년을 지났다 하오 歷年曾過千

그 뒤에 기자(箕子)의 대(代)에도 後來箕子代

한가지로 조선(朝鮮)이라 이름하였소 同是號朝鮮

이러한 양촌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성균관유도회 포항지부에서는 문종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선생의 학덕(學德)을 시제(詩題)로 하는 전국 한시(漢詩) 백일장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한시에 관심 있는 안동권씨 종친 여러분께서는 투고 마감 전에 응모하여 문종공 양촌 권근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숨겨온 재능을 만방에 드날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1. 시제(詩題) : 찬(讚) 양촌 권근 선생 학덕(學德)
2. 압운(押韻) : 천천, 선선, 험험, 선휴, 전휴
3. 투고마감 : 2024.7.31.(기일요일)
4. 투고처 : 우)37837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06 112동 1102호 정규섭
5. 작시문의(作詩問議) : 010-3532-4095(이환식)
6. 상금내역 : 장원(壯元) 1인 70만원, 차상(次上) 1인 각 40만원, 차하(次下) 1인 각 30만원, 참방(參榜) 10인 각 10만원, 가작(佳作) 30인 각 5만원
7. 시상일정 : 2024.9월중(추후 통지예정)
8. 후원 : 포항시, 포항시의회, 성균관유도회경북본부, 안동권씨양촌종중

권행완 편집국장

제2회 안동원로원 회원 아우회, 충북 제천, 단양 다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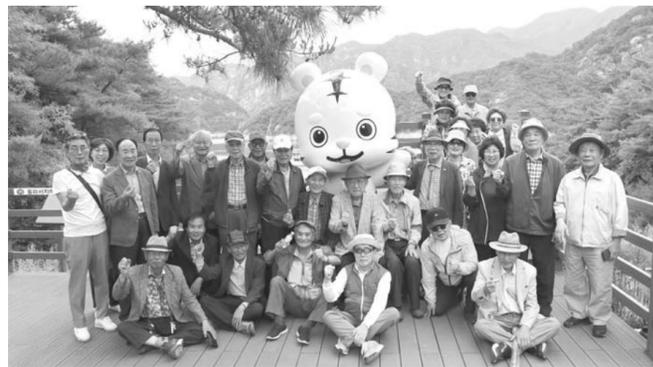
안동중진회(회장 권철환)는 원로원 회원 단합과 친목을 위해 봄철 아우회를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갖는 이번 아우회는 충북 제천시 정풍호 케이블카, 옥순봉 출렁다리, 충북 단양군 충주호 유람선 등 3개소를 다녀왔다. 작년 1회 아우회 때는 5월 8일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 스키아레일과 강원도 동해시 촛대바위 등을 다녀왔다.

5월 30일 오전 8시 안동권씨회관 앞에서 만 80세 이상 안동원로원 회원 24명과 새천년 부녀 봉사대 회원 6명 등 모두 30명이 의성문소관광 리무진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 권중주 안동농협 상임이사 등 3명이 나와서 "잘 다녀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다.

달리던 버스 안에서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철환 회장, 서정애 봉사대 단장, 권재주 원로원 의장이 인사말을 하였으며 특히 권재주 의장은 "여말 때 소풍하는 기분으로 평생 남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기원 한다"고 당부했다.

관광버스가 첫 목적지인 충북 제천시 정풍면 문화재길 정풍호반 케이블카에 도착, 삼삼오오 짝을 지어 케이블카에 올라왔다. 이 케이블카는 제천 정풍면 물태리에서 비룡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9분 만에 운행하며 케이블카 시설로 오스트리아 도플마이어 최신행 10인승 캐빈 46기로 운행한다. 2020년 한국관광의 별, 2021-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 비룡산 정상은 531m로 계단도 531개가 설치되어 있다. 비룡산 정상의 조망은 사방이 질푸른 정풍호로 둘러싸여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의 섬에 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정상에서 360도 파노라마 경치는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정풍호를 마음껏 감상한 회원들은 다음 구경거리를 위해 재충전하는 뜻에서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에 위치하고 있는 '팔각정' 식당으로 이동, 이곳에서 떡갈비, 갈비탕, 전복 등을 곁들여 푸짐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권재주 의장, 권철환 회장, 서정애 단장 등 3명이 돌아가면서 간배제의를 하였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단양군 단성면 월마로에 위치하고 있는 장화나무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충주호 유람선인 단양 호를 타고 선장의 해설을 들으며 장화나무에서 옥순대교 아래쪽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 약 1시간 소요된다. 이 유람선의 정원은 300여명이며 정풍호의 푸른 물결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림 같은 호반의 풍광을 즐겼다. 단양 구담봉은 단양 8경 중 하나이고 단양군 단성면과 제천시 수산면에 걸쳐있는 바위로서 웅장하고 아름

다운 봉우리이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과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기생 두향의 묘소(墓所)가 구담봉 근처에 있는데 흰 막대기로 울타리를 설치에 놓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정함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10경 중 8경인 옥순봉 출렁다리를 보러갔다. 2021년 10월 개장한 이 출렁다리는 길이 222m, 너비 1.5m로 몸무게 70kg 성인 1280여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리를 지날 때 흔들거림을 느껴야 제 맛이 난다며 흔들리는 사람도 다수 있다.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는 이 출렁다리는 매우 유희요인 휴양지이다.

이날 즐거운 아우회를 마친 회원들은 안동에 돌아와서 안동시 강남1길(정하동) '등대회초밥'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추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유산균분말 1팩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신중년을 위한 가이드

맞춤형 생애설계를 통한 전직 지원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년 북아공파)



안동권씨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생애설계와 전직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이 재취업이나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중년과 재취업의 중요성

50대 이후의 생애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신중년이란 생애주기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 맞는 재취업이나 새로운 커리어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생애설계와 재무설계

생애설계는 퇴직 후의 삶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재무설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건강한 재무 관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생애설계는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적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이해

전직지원 프로그램은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직 역량 분석, 재취업 지원, 경력 개발, 그리고 맞춤형 생애설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전직 역량 분석 : 자신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가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커리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성장과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가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직 역량 분석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

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직업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가진단 도구는 이러한 분석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또한, 역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력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가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의 성격 유형, 흥미, 직업 가치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직업군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신이 기존에 몰랐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커리어 패스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전직 역량 분석은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서, 자신의 직업적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 재취업 지원 : 재취업 시장의 현실과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취업 정책과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자기 PR 전략과 면접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교육,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직업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포함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등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구직 사이트 활용법, 인맥 네트워크 활용법 등도 숙지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자기 PR 전략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이는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어필하

는 것이 성공적인 재취업의 열쇠입니다.

3. 경력 개발 : 경력 개발은 평생 학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현황과 경력 대안을 파악하여,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력 개발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가치를 높이고, 보다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장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 개발은 평생 학습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력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자격증 취득, 온라인 강좌 수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 개발을 통해 새로운 직업적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신중년의 경력 개발은 단순한 일자리 탐색을 넘어서, 자신의 직업적 성장을 지속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4. 맞춤형 생애설계 : 맞춤형 생애설계는 개인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하여, 재무적 안정, 건강 관리,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여가 및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은 보다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생애설계는 개인의 삶의 전반을 포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맞춤형 생애설계는 개인의 특성과 목표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은 은퇴 이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생애설계는 재무적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애설계를 통해 개인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생애설계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 계획 수립, 건강 관리 계획,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 여가 및 취미 활동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생애설계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2024년 모암계 정기총회 소식



인사하는 설암의 장손 권석근(주)세일사 회장

한학자 설암 권옥현(1912~1999년) 선생을 기리는 갑진년 모암계 정기총회가 지난 6월 1일 11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해암부패에서 열렸다. 이날 계획에는 단국대 허호구 교수와 김해와 고성, 동래 등 부산, 경남 일원의 향교와 유림을 비롯하여 선생의 고향 합천과 안동권씨부산총친회, 한국성씨연합회에서 온 한학자, 설암의 문학생들, 가족과 친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계장(契長)인 정경주 경성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을 통하여 "선생은 격동의 세월에도 휘둘림 없이 정통 유학과 자신의 학

풍을 꿰뚫어 지켜나신 부산을 대표한 유학자"임을 강조하고 "설암의 올곧은 생애와 학문적 성취는 후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가족을 대표하여 장손 권석근 세일사 회장은 "바쁜 주말임에도 모암계에 참석하신 허호구 교수님을 비롯한 유학계 어르신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는 인사와 함께 "30년 전부터 금남서당을 오가며 유학을 접해 왔어도 고투하여 현실감이 떨어지는 학문으로만 여겼다."면서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삶의 길도 알고, 해마다 발표회 자료를 통해 조

권채영 부산 사무국장